

서안교회 복음반 성경 공부 노트 / 2023. 4

예수^와 구원

서안출판

www.westpeace33.net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늦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고 성경의 모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귀결된다.

이 십자가에는 인생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패역한 인생에 대한 사랑이다.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이다.
이 완료된 사실이 믿어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백성이다.

서안교회 복음반 노트/ 2023. 4

예수^와 구원

예수와 구원

초판 발행: 2023년 10월 1일

발행인: 서안교회

발행처: 서안출판사

<https://www.westpeace33.net>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7번길 16, FM 빌딩 304호

010-4952-8575

westpeace33@gmail.com

차례

1. 두 아담과 죄/ **7**
2. 하나님과 법/ **15**
3. 여호와 하나님/ **27**
4. 아브라함과 믿음/ **33**
5. 예수와 구원/ **41**
6. 성령과 교회/ **53**
7. 안식과 하나님 나라/ **69**

1. 두 아담과 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
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
니라 [롬5:12]

<두 아담>

하나님의 창세 중심에 하나님과 두 아담이 있다.
히브리어 '아담(אָדָם)'은 우리말로 '사람'이다.

성경의 중심 되는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
시려고 둘째 아담¹⁾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
내주신 이야기이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잃어 버렸다.

"떡지 말라"는 법은 가려져 있는 아담의 죄를 드러
냈다.

그렇게 첫째 아담이 죄를 드러내고 사망에 이른 것
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이라
는 왕의 통치²⁾ 아래 갇혔다.

1)
첫 사람은 땅에서 났
으니 흙에 속한 자이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47]

2)
한 사람의 범죄를 인
하여 사망이 그 한 사
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로
마서 5:17]

<죄, 죄인, 첫째 아담>

성경에 사용된 죄에 관한 용어는 원어 명사만 20가지가 넘는다.

그 중 대표적인 단어는 죄와 불의(不義)와 허물이다.

각 단어의 뜻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정리하여 보면, "과녁을 벗어난, 옳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 등으로 설명 된다.

'죄'를 하나의 '세력'으로 여긴다면, 죄는 비진리의 세력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패역한 세력이다. 이 세력의 유일한 숙주(宿主)가 사람이다.¹⁾

죄는 보이지 않고 인지할 수 없는 원인이고 범죄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²⁾이다.

아담 안의 모든 인생은 이 죄의 세력 아래 태어난 죄인이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찌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렘13:23]

1)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예레미야 17:9]

2)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5]

죄인은 출생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다.¹⁾
 죄의 세력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도 [시78:39]

"육체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망으로
 결정된 인생을 설명해 주는 말이다.

육체뿐인 인생은 죄를 이길 수도, 벗어날 수도 없다.²⁾

'죄와 사망'의 세력 안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 첫째 아담의 세계는 큰 무덤이다.³⁾

<마지막 아담>

이 무덤에 갇혀 있는 자에게 들리는 둘째 아담의
 음성이 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
 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

1)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
 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
 하는 그것을 하면 이
 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
 는 죄니라 [로마서
 7:19-20]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
 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
 을 행하는 자가 없
 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2-3]

3)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
 한복음 5:28]

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5:25]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죽은 자이고 무덤 안에 있는 자이고 죄와 사망의 세력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자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시65: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들에게 유효하다.

다윗의 신앙은 다윗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신앙이었다.

만일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듭날 이유가 없는 자가 된다.

죄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죽은 자'이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지 '노력'이 아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¹⁾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인생에게 임한 저주

1)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32]

와 축복을 가장 쉽고 짧게 설명한다면,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사52:3]이다.

태어나 보니 이미 아담을 인하여 죽어 있고, 알고 보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놓으셨다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전15:45]

마지막 아담 예수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세상 끝에 오셨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9:26]

<여섯째 날의 남자와 여자>

에베소서 1장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여섯째 날의 완벽한 재현(再現)이다.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전15:47]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에서 첫째 아담의 형상을 볼 수 없다.

첫 사람 아담의 세상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러 끝이 난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잃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저주 받은 땅에 속한 흙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모든 것에 매인 삶에 갇혀버렸다.¹⁾

여섯째 날의 사람은 살려 주는 영의 마지막 아담임이 분명하다.

마지막 아담 예수는 첫 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자를 위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첫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회복하여 주셨다.

1)

내 백성이 두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13]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여섯째 날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일곱째 날을 누리는 삶이다.



로움껏느니라
 니사망에서생명으
 에이르지아니하나
 영생을얻었고심판
 내신을믿는자는
 내말을듣고또나보



홍익인간
 서영희

2. 하나님과 법

3,500여 년 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반포하시고 이동식 성막의 제도를 보여주시며 열 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다.

이 돌판을 증거판, 법판¹⁾이라고 한다.

<깨뜨려진 법판과 증거궤 안의 증거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 돌판을 새겨 주셨다.²⁾ 시내산에서 첫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날, 이 돌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뛰노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 깨뜨려졌다.³⁾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집행된 결과이다.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깨뜨러지기 전에 이미 그 용도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가 정하여져 있다.

1)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으므로 ‘법판’으로도 불리지만, 증거판의 히브리어 ‘에두트(עֲדוּת)’는 ‘증거’라는 뜻이다.

2)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1: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애굽기 34:1]

3)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촘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출애굽기 32:19]

-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출25:21]

이 증거판은 지성소¹⁾ 안의 속죄소²⁾ 아래 법궤³⁾ 안에 두기로 결정되어 있다.

첫 번째 돌판이 죄와 사망의 법을 집행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였다면, 두 번째 돌판은 속죄소(시은좌)⁴⁾ 아래에 두어 대속의 피를 증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직 둘째 장막(지성소)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히9:7]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9:22]

첫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은 이 두 돌판에 나타난 역할을 수행한다.

<제사>

이 땅 위에 세워진 성막⁵⁾의 역할은 '제사(祭祀)'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이다.

1) 지성소(至聖所)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이다.

2) 속죄소(贖罪所)는 법궤를 덮는 덮개이고 두 그룹(천사)의 형상과 함께 한 덩이 금을 쳐서 만든 조형물이다.

3) 법궤(法櫃)는 증거판을 둔 상자, 증거궤(證據櫃)이다.

4) 시은좌(施恩座)는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다.

5)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찌니라 [출애굽기25:8-9]

성경에서의 하나님 제사, 히브리어 제바흐(זָבַח)는 '잡다(짐승을 죽이다)'는 어원을 가진 말이다. 이 단어 속에 이미 '희생, 대속'의 의미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의 번제단¹⁾에서 지성소에 이르는 제사의 규례를 정하시고 지성소의 법궤 위 속죄소에서 은혜를 베푸셨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시작과 결과는 하나님이 제시한 법에 근거하고 결정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출 29:4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출 25:22]

번제단과 속죄소인 시은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의 법이 집행되는 장소이다.

번제단에서 집행되는 하나님의 제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이다.

이 하나님의 제사에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의

1) 번제단(燔祭壇)/ 번제를 드리는곳/ 번제는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불로 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오르다"의 히브리어 "오라(אָרַב)"가 번제로 번역되었다.

규례가 그려져 있다.

이 제사들을 통하여 속죄된 신분과 번제된 마음과 화목된 삶의 경이로운 세계¹⁾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이 규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과 '구속함을 입은 백성의 삶'의 설계이고 모형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율례를 완전케 하셨다.²⁾

<가죽 옷>

제사의 시작은 '흙덩어리 아담'³⁾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죽 옷'으로부터 기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3:21]

'가죽'은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물건이고 '옷'은 허물을 가리는 용도로 입혀진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이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아담을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

1)

- 너희 몸을 하나님
이 가뻐하시는 거룩
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
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2)

내가 율법이나 선지
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
러 온 것이 아니요 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17]

3)

-필경은 흙으로 돌
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
이라 너는 흙이니 흙
으로 돌아갈 것이니
라 하시니라 [창세기
3:19]

었다.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예표(豫表)이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¹⁾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제사는 '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1:6-8]

창세의 시작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땅에 속한 법과 땅 위에 속한 법으로 나뉘어 집행된다.

아담에게 임한 "먹지 말라"는 최초의 법은 아담 안에 있는 이 법을 거부하는 세력을 드러내었다.

1)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창세기 4:4]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고 불법한 죄인을 위하여 입법되었다.¹⁾

"먹지 말라"는 법을 시작으로 땅에 속한 모든 인생은 땅에 속한 법인 '죄와 사망의 법'과 함께 사망에 이른다.

땅에 붙어사는 인생 중에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없고,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지닌 자를 찾을 수 없다.²⁾

히브리어 '율법(תּוֹרָה 토라)'의 어원에 '흐르다(הָרַג :야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신기하게도 한자어 '법(法/水 + 去)'에서도 같은 의미를 읽을 수 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모든 인생과 함께 저주의 바다에 이르도록 정해 놓은 법이다.³⁾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을 죽음의 바다로 만든 하나님의 심판이고 후대 사람들을 위한 경고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가므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다.⁴⁾

1) 알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디모데전서1:9]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2-3]

3)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3:10]

4)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됴이라(육체이므로 범과함이라) [창세기 6:3]

-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벧후3:6-7]

홍수의 경고를 무시한 인생들의 높은 마음 위에 물
이 덮이는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굳어진 마음을 소멸할 불의 심판이 준비
되어 있다.

이 땅에 속한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은 '죄
와 사망의 법'이다. 이 심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노아 홍수가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한 것처
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죽을 자를 살리시기 위한
사역이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
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
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라 [벧후3:9]

하나님의 법과 심판은 '공의(公義)'로 집행된다.
그러나 만일 죽은 자를 죽이는 심판이면 이 심판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허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¹⁾
율법은 죽어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줄 알게 하고, 죽은 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²⁾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엄위(嚴威)이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심판 속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다.

태풍의 중심에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에 거하는 자들을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³⁾

<죄를 깨달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증거로 로마서 1장 18절로 시작하여 3장 18절을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1)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17]

2)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19]

3)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12-13]

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¹⁾

죄를 깨닫는 일, 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²⁾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빛깔'의 세계를 알 수 없다.

이 세계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러나 소경이 눈을 뜨는 순간 '빛깔'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

이처럼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도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사람의 중심이 비춰지면 죄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율법 위에 드러난 자기의 정체를 보았다면, 비로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본 자가 될 것이다.

그 모습, 그 세력의 정체는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다.³⁾

유다의 죄가 단 뿔에 새겨진 것처럼⁴⁾, 모든 죄는

1)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20]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양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레위기 4:28]

2)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17]

3)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 이오며 [다니엘 9:9]

4)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늘 [에레미야 7:1]

하나님의 권위(뿔)에 대한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권위는 '진리의 말씀'에 있고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자신의 마음 중심에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을 본 자가 죄를 깨닫는 자가 아니겠는가?

<생명과 성령의 법>

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자들에게 율법은 몽학 선생¹⁾이 되어 하늘에 속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패역이 깨달아진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단9:9]

마치 바다에 도달한 물이 다시 하늘에 올라 구름이 되는 것처럼 사망과 흑암의 땅에 속한 줄 알게 된 인생에게 하늘에 속한 생명의 법이 집행된다.²⁾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요5:46]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2]

1)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24]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이사야 9:2]


 땅이보여야
 하늘이보인다.

내기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
 가릴지아니하
 게은하물며하
 늘일을말하면
 어떻게말겠는
 나


 주
 기

3. 여호와 하나님

<에노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4:26]

에노스의 히브리어 '에노쉬(~~עֵנֹשׁ~~)'의 어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지기 쉽고 약하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에노스 이전의 상황인 창세기 4장의 내용은 가인과 가인의 후예(後裔)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없는 그들의 주장(主張)이 지면(紙面)을 진동한다. 그들의 세계를 약속하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방어와 공격의 삶"이다. 이 생존 전략은 오늘 이 세상에 여전하다.

아담은 "아벨 대신 주신 씨"로 여기는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아들의 이름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그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표호(標號)>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출3:14-15]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와 사자를 만났다.

이곳은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존재의 힘에 다스려지는 현장이다.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거기에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히셨다.

이 말씀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

과 야곱을 영원한 존재의 세력 안으로 옮기신 구원의 사역을 나타낸다.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롬 4:17]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명칭이다.

'여호와'의 히브리어 '예호바(יהוה)'는 '하야(יהי)'라는 "있다, 존재하다"는 어원을 갖는다.

'하나님'의 히브리어 '에로힘(אלהים)'의 어원에서 '엘(אל)', "힘과 능력"을 읽을 수 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사43:13]

<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이 전능의 존재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대상은 없는 것과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¹⁾이다.

1)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12]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와 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불붙은 떨기나무'는 80세 필부(匹夫) 모세의 형상이고, 쇠풀무 애굽²⁾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상이고, 죄와 사망의 세력 안에 소멸해 가는 아담 안의 모든 인생의 형상이다.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사48:9-12]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이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한 피조물의 탄식에 묻어 나오는 이

2)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신명기 4:20]

름이다.

이 탄식은 전능의 존재인 창조주께서 듣고 찾으시는 대상이 아니겠는가?

탄식의 진원은 '죄와 허물'이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시고 살피신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사43:25]

4. 아브라함과 믿음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자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1:3]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근거이고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는 힘이다.¹⁾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12:3]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지 않은 사실이 믿어진 열매이다.

믿음의 사람은 본 것을 의지하는 자²⁾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르는, 의지의 축이 옮겨진 자이다.

1)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2)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서 2:18]

<아브라함을 부르심>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창12:1-2]

하나님께서서는 자식이 없는 칠십 오 세의 아브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배경으로 삼으셨다.

성경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택하였고, 그의 출처를 '우묵한 구덩이'로, '혈혈단신'의 상황으로 기록하고 있다.¹⁾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근거인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을 더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약하면 "떠나라"와 "되리라"이다.

"떠나라" 안에 "지시할 땅"이 있고 "되리라"가 함께

1)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12]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이사야 51:1,2]

한다.

만일 떠나지 않는다면 아브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떠날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만일 떠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모두 하나님의 준비한 세계, '여호와이레'이다.¹⁾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아브람의 세계이고, 인간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고,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혼잡 되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절한 육체의 세계이다.²⁾

이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진 자의 믿음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 이미 주어진 세계이고 모든 육체가 의지하는 세계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영역을 떠났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가 되었다.

1)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14]

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 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됴이라 [창세기 6:3]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15:5,6]

아브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자신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의 마음에 받아드리기에 어려운 후사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아브람은 흘러가던 생각의 방향을 달리한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신의 익숙하고 헤아릴만한 세계에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세계로 방향을 달리하는 아브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

성경은 이 상황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었다"라고 기록해 놓았다.

이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익숙한 흐름에서

방향을 달리하는 마음에 형성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의 원어 '아만(אמן)'이 이사야 30장 21절에서는 '오른편 길을 취하다'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

이 믿음의 삶은 자기 생각에 익숙한 삶의 방향에서 역주행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에 몸과 마음을 던지는 삶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은 분량이 아니라 대상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와 그를 구하고 의지하고 누리는 활동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히11:6]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에 이끌린 아브라함¹⁾에게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취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1)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26:5]

<할례>

구십 구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웃었다.

이 웃음은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실소(失笑)이다. 실소는 다소 황당하여 저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온 웃음이다.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창세기 17:17]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은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정과 충돌한다.

이 충돌의 현장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가 '할례'이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렘4:4]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는 마음에 새기는 분별의 표시이다.

할례의 표시는 결코 명예로운 훈장이나 계급이 아

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표시이다.

그리고 할례는 사람의 경험된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도약(跳躍)이고, 할례된 마음은 '믿음의 삶'의 한 형태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3:3]

하나님께서 구십 구세가 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17:1]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할례는 완전한 참여하는 통로이다.

자신의 삶의 축(軸)이 자신인 사람이, 이 축을 떠나 하나님의 축으로 옮겨진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누리는 자가 아닌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친한 자도 헛되
 크높은 자도 거
 깃되니 저울에
 달면 들러입검
 보다 갱하리


 이권규
 2016

5. 예수와 구원

<예수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21]

'예수(헬라어/ Ἰησοῦς)'는 히브리어 '여호수아(יהושע)'의 음역이다.

이 이름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압축하여 말한다면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이다.¹⁾

이 완료된 사실이 믿어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예고 된 이름이 있다.

1)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12]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7:14]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성취하셨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4:12]

<성경>

성경은 예수와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책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5:39]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내용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에 귀결된다.

1)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의 근거를 원하지 않았다.¹⁾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3:15]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세례 요한의 만남과 그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의의 성취를 알리는 일이고, 구약과 신약을 잇고 완성하는 결정적인 예표(豫表)이다.

세례, 곧 침례(헬리어 βαπτιστής)는 '침수한다'라는 의미의 말이다.

예수의 몸이 물에 잠김은 장사(葬事)를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심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열린 하늘의 새 세계²⁾를 예고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2:12]

1)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2]

2)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6-17]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간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자신이 속한 세계의 구분을 분명히 한다.

율법의 의(義)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지극히 절제된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이지만, 자신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기다리던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좇아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의 예식에 참여하였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예수는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식이다.

닫혀 있던 하늘이 예수를 향하여 열렸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를 증거하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한 세례 요한도 예수를 향하여 증거 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

<영원한 제사>

한 사람의 '모든 죄'의 범위를 정한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죄악된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 규정은 훨씬 단순하다. 그것은 첫 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이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잃은 아들, 죽은 아들'¹⁾인 것처럼, 하나님을 잃은 아담은 사망의 영역에 갇혀서 악취를 뿜어내는 무덤 안의 존재이다.

그러나 이 무덤까지 이른 예수께서²⁾ 첫 사람 아담의 몸을 벗으시고 새 몸을 입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10:12-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세상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속의 능력이다.

1)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32]

2)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6]

'영원한 제사'는 영속(永贖)¹⁾의 의미와 함께 '완수(完遂)²⁾와 새 영역으로의 도약(跳躍)'을 포함한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한 자를 설명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영원한 제사'와 함께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설명하는 말이다.

<십자가>

3년간 어린 양 예수의 삶을 사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3:23-2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났다.

인간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패역이고, 하나님의 것은 사랑이다.

1)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쁨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 9:24]

2)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느니라 [히브리서 9:26]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허물을 가릴 수 없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¹⁾ 인생을 위하여 예수께서 화목 제물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15:13]

예수께선 친구가 아닌,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포함한 온 세상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셨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는 군병들이 있다.

이 능욕의 세력은 군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둘러싼 무리들, 또 멀리 숨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오늘 나의 육신에 그 세력은 여전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의 세력을 예수에게 유업으로 주셨고²⁾, 향나무가 짙는 도끼에 향기를 묻히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역을 펼하셨습니다.

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 [에베소서 2:1, 13]

2)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8]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
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10]

<죄패>

예수를 능욕하는 패역의 현장에 십자가가 세워졌
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여졌다.

죄패는 죄명(罪名)이 기록되는 곳이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원하였으나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기
록하였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에게 예
수는 '자칭 왕'이고 가짜 왕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기이한 죄
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왕은 십자가에
오르시고 이 왕을 거절하는 세력에 의해 못 박히셨
다.

이 '유대인의 왕'에게는 대속을 위해 짊어진 '세상 죄'가 있다.

자신을 거절하는 능욕의 세력을 포함하여 멀리 숨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의 죄까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 지셨다.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모든 의는 완성이 되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4:25]

십자가는 첫째 아담의 세계가 끝이 난 곳이고 부활은 둘째 아담인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의 시작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1:3]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터¹⁾가 되었고, 부활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대속의 은혜와 산 소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자기 육신의 마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고 '예수의 마음'²⁾을 품는 일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빌3:10-12]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늦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10:10]

1)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11]

2)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결과이다.

이 예수와 구원의 모든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로 증험(證驗)되었다.¹⁾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눅4:16-21]

"오늘날 너희 귀에 응(應)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도 듣고 응하는 자에게 유효하고 믿는 자의 구원을 증거한다.

1)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찌니라 [신명기 18:22]

전 그릇
보배와

문

우리가 보배
를 얻기 위하여
그릇이 되어야
한다

기름은 그릇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
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배
를 얻기 위하여
그릇이 되어야
한다

고민도
주서사
장집필

6. 성령과 교회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그러나 제자 중에 이 말씀을 믿거나 삼 일, 72시간을 헤아리고 고대하며 부활을 기다린 자는 없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빗장을 질러 놓지 않았으리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20:19-22]

예수께서는 이렇게 닫힌 공간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먼저 평강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드립니다.

본 것을 의지하는데 익숙한 인생¹⁾에게 본 것을 의지하여 형성된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시각과 촉각 등의 감각과 그 감각을 근거로 형성된 생각을 의지한다.

도마의 믿음은 자기 판단의 결과이지 말씀에 다스려진 결과가 될 수 없다.

성령의 이끌림은 '듣고 믿음'으로 된 결과이고 믿음의 실현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²⁾

제자들은 들었으나 그 마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제자들의 생각을 따라 만들어진 믿음이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삼켜 버렸다.

예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육신의 정욕으로 기울어진 모든 인생의 불의함을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가?

예수께서는 땅에서 들리실 때, 제자들을 포함한 모

1)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서 2:18]

2)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63]

든 인생의 불의가 드러났고 심판을 받았다.¹⁾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육신의 기울어진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탄식(?) 하시며 부탁하시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믿음대로 부활하셨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²⁾

나는 성령을 받은자인가?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겨주신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에 진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염소처럼 자신의 한 일의 증거를 나타낸다.

1)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4-15]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32]

2)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20]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롬8:9]

자기 친자(親子)를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친자를 대적하고 능욕한 자들을 양자로 입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 의부(義父)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양자의 마음에 흘러 들어가 지혜와 분별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끝내시고 긍휼과 사랑을 입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¹⁾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이끌리는 영역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1) 긍휼에 풍성한 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하신 그 큰 사랑을 인
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
리셨고 (너희가 은혜
로 구원을 얻은 것이
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니 [에베소서 2:4-6]

육신에 품부(稟賦)하지 않으셨다.

육신을 제어하는 지혜와 능력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육체로 육체를 제어하는 수고, 육체의 허물을 육체
로 극복하려는 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수고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몫이다.

그리스도인이 입고 있는 육체는 사망을 열매 맺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일을 나타내는 의의 병
기이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
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10:10]

이 세상 기독교인들 중에 성도의 삶이 "성화(聖
化)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과 대치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
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하는 자
의 허언(虛言)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인 "거룩함을 얻었다"는 완료된 결과의 기록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총체적 사역의 결과이고,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의 마음에 맺혀진 하나님의 권능이며 구원의 확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진 결과이고 성령의 인(印) 치심으로 "거룩함"을 얻고 누리는 세계이다.

하나님께서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세계를 누리게 하신다.

결코 사람의 의지나 수고가 요구되는 세계가 아니다. 반대로 사람의 의지나 수고가 거세된 곳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세계이다.

양자(養子) 입양이 확정되었는데¹⁾, 여전히 양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는 정신과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룩하게 된 자가 거룩하려고 노력한다면 거룩한 자가 아니다.

온 몸이 깨끗한(거룩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

1)
너희는 다시 무서워
하는 종의 영을 받
지 아니하였고 양자
의 영을 받았으므
로 아바 아버지라 부
르짖느니라 [로마서
8:15]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
데 보내사 아바 아
버지라 부르게 하셨
느니라 [갈라디아서
4:6]

는 예수의 사역은¹⁾ 그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허구의 세력을 씻어주시는 사역이 아닌가?

만일 그 거짓 세력이 씻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되려 하고 "성화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십자가의 원수²⁾이다.

오리 사이에 태어난 백조가 어느 날 자신이 백조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백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백조가 백조 되려는 수고가 아니라 하늘을 날고 있는 백조들과 함께하는 일이 아닌가?

<성도의 삶>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2-24]

거듭난 성도들에게 유혹과 욕심과 구습(舊習/ 거듭나기 전의 옛 습관)이 남아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10]

2)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29]

뱀의 머리가 잘려도 그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 거리는 현상이다.¹⁾

구습은 십자가에 죽은 것의 흔적 중 하나이다.

거듭난 성도(聖徒)의 삶은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산 것에 참여하는 삶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앞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말씀이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입혀 주시는 삶의 옷은 옛 사람을 벗는 자에게 입혀진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5:15]

결국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이다.²⁾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11:29]

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21]

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2]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남이 되었고, 부름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 나타낸 이 성품은 이 성품에 이끌린 자들의 옷이고 능력이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13:14]

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도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은혜로운 선물인 은사(恩賜)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봉사의 세력은 부름을 입은 자신을 보호하고 부름을 입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

성도의 삶은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을 견지(堅持)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이와 그 일이 나타나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한,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결과이고 거듭난 신분이다.

성도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누리는 삶"이다.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옮겨 주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후6:17-18]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이다.¹⁾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냐에 의해 결정된다.

1)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2:7]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여 첫 사랑과 첫 행위¹⁾를 잃은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이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위에 세워지는 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세상의 지혜로 세우려는 더
러움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신다.²⁾

더럽히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교회는 각 성도의 은사와 섬
김을 통하여 교회가 회개하여 거룩함을 유지한다.

만일 교회 위에 아볼로나 바울이나 사람이 세워지
면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가증하고 인위적
인 종교 단체이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1)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
음 사랑을 버렸느니
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
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
치 아니하면 내가 네
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라 [요한계시록 2:4-5]

2)

너희가 하나님의 성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
하시는 것을 알지 못
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
나님이 그 사람을 멸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
희도 그러하니라 [고
린도전서 3:16-17]

이 되어가고 [엡 2:2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안에 태어난 새 생명은 성전의 한 부분이다.

바울도 베드로도 오늘 태어난 새 생명도 한 부분이다.

서로 귀중하고 보배로운 지체이다.

<성령의 보살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눅10:30-35]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율법사에게 예수께서 제시한 영생을 누리는 장소가 있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일, 주막으로 옮겨지는 일, 주막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일이다.

이 주막이 교회라면, 교회에 옮겨진 자가 보혜사 성령의 보살핌을 받고 지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겠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거듭난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영생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이다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길은 모든 인생의 마음에 담겨 있는 두 처소와 영적 상황을 설명하여 준다.

두 처소는 예루살렘과 여리고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과 '여리고에 머물려는 마음'이 있다.

예루살렘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여리고에 머물려는 마음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마음, 죄의 세력에 다스려지는 마음이다.¹⁾

이 길 위에 있는 자들의 결국은 여리고로 휩쓸려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

이 길은 '원하는 바 선과 원치 않는 악'을 오가는 왕복 운동의 길이고 육신에 속한 인위적 종교 활동의 길이다.

강도 만난 자의 구원은 이 길로부터의 구원이다.

예수의 형상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옮겨 놓은 주막은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교회이다.

그리고 주막 주인은 보혜사 성령²⁾의 형상이다.

교회를 이끄는 보혜사 성령은 옮겨진 자들이 다시 옛 길과 옛 행위로 흐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³⁾

1)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19-23]

2)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26]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3]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기쁨을 기뻐하며 영
행에 이르러 주께 우리
주께 스승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뻐하라 

지혜

지혜는그연
은지에계생
명나무라지
혜를기진자
는복되도다

홍익인사

7. 안식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
 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
 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
 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2:1-3]

하나님의 모든 일의 완성은 '영원한 안식'에 있다.
 안식은 일을 다 이루었을 때, 일을 다 마치었을 때
 얻는 결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의 완성과 끝났음
 을 분명히 하시면서 안식의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안식
 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는가?

<잃어버린 안식>

성경은 첫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안식¹⁾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²⁾하여 주신 일을 증거하고 있다.

아담의 불순종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안식 없는 곳이 되게 하였다.

사람들은 안식이 없는 곳에서 안식을 구하고, 안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안식을 누리려는 수고와 고통의 현장에 갇혀 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시107:10-12]

고된 수고는 탄식을 낳고 수고와 탄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고는 더 무거운 수고와 더 깊은 탄식과 공허를 낳는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³⁾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여 주기

1)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
지 말라한 나무 실과
를 먹었은즉 땅은 너
로 인하여 저주를 받
고 너는 종신토록 수
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17]

2)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3)

믿음으로 모든 세계
가 하나님의 말씀으
로 지어진 줄을 우리
가 아나니 보이는 것
은 나타난 것으로 말
미암아 된것이 아
니니라 [히브리서
11:3]

위한 잠시 세계이다.

첫째 아담 안의 모든 수고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따라 가는 결과이다.

<회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회개(悔改)는 회전(回轉)의 동작과 함께 한다.

마태복음 11장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고을, 고라신과 벳새다와 가버나움을 예수께서 저주하셨다.¹⁾ 그리고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이들의 지혜와 슬기가 아닌 다른 안식의 방향을 제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좇은 결과가 안식을 잃은 것이면, 안식을 회복하는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방향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켜야만 한다.

돌이킨 방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

1)

화가 있을찢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찢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태복음11:21]

예수께로 가는 일은 예수의 멍에를 함께 메는 일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롬 6:3-5]

예수와 멍에를 함께 메는 일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함께하는 일이고 안식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히4:10]

몸이 피곤할 때 침대가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빗쟁이에게 당감이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죄인에게는 십자가가 그들이 안식처가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세계를 비웃는 자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성을 쌓는 자들에게 '말세(末世)'는 불편한 진실이다.

노아 때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이번 세상은 불사름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데, '불사름'이라는 물리적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말세'의 심판이 경험된 자들이 있다.

이들은 세상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¹⁾에 오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자들이다.

아담 안의 수천 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루에 담겨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세계가 그의 부활과 함께 열렸다.

땅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홍수에 엄몰되고 방주를 의지한 노아와 일곱 가족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던 우리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마음에 말세가 경험된 자들은 장차 망할 땅 위에 더 이상 '자기 城'을 쌓을 수 없다.

1)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26]

성(城)이 아니라 선(船)을 짓는 노아처럼 방주되
신 예수와 함께하는 안식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
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
을 바라보도다 [벧후3:12-13]

온 천지를 덮는 홍수의 격노가 임하기 전에 노아의
마음에 말씀의 심판이 임하였고 이 노아를 의롭다
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
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놓
으셨다.

<신의 성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
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
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
려 하셨으니 [벧후1:4]

아들에게 아버지의 성품이 유전되는 것처럼 하나
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고, 그
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나타

난다.

그 성품의 내용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다.

이 아름다운 성품은 아버지를 자세히 앎으로 아들의 마음에 저절로 맺히는 열매¹⁾이다.

예수를 앎으로 얻은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의 시작이고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성품을 공급받아 누릴 수 있는 근거이다.

아버지의 성품은 아들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자는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택함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13]

¹⁾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4]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용해되어 자신의 근본이 깨닫게 된 자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가진 제자에게 예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천국 복음은 예수의 음성을 왕의 음성으로 듣고, 배워 알게 되고, 누리는 자를 위한 세계이다.

소금이 사람의 입에서 타액에 의해 용해되면서 짠 맛이 생겨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용해되어 말씀 속에서 발견된 자신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짠 맛을 내는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맛을 내는 자이다.

짠 맛을 내면 그는 소금이다.

이 짠 맛은 하나님의 미각에 의하여 결정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뻐 받으시는 맛이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것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짠 맛을 내려는 인위적인 수고가 아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복종된 반응이다.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여인*[요4:]은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이전에 없었던 '맛'을 나타내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4:29]

예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가 비추어 졌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의 엄위는 여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영접한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고¹⁾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 앞으로 인도되었다.

이 여인에게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을 읽어 낼 수 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였는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31-34]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 족속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가?

각도로 새겨 만든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있다. 금송아지는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이고 백성이 소유한 하나님이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왔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는 자"로 여기셨다. 거듭남은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나라에 옮겨짐을 의미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어두움은 하나님을 잃은, 하나님 없는 세계이다.

바울은 이 어두움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신을 볼 수 있었다. 1)

1)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15]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엡5:8]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엡5:14]

빛의 자녀들의 원적(原籍)은 어두움이다.
 이 어두움의 터널에서 나온 자들이 빛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창세기 47장의 바로가 꾸 꿈인 7년 풍년, 7년 흉
 년은 모든 인생의 결과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
 는지를 알게 해준다.
 돈, 짐승, 전지(田地)가 생명을 보존하여 줄 수 없
 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물질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
 은 어두움에 속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누
 리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헵시바와 빨라>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
 는 여호와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
 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
 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1-5]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결혼한 여자"라는 뜻
 의 이름인 '헵시바와 빨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의 별칭(別稱)이다.

헵시바와 빨라의 본래 호칭은 "버리운 자", "황무
 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의 공의와 예루살렘의 구
 원을 밝히 나타내시고 성취하신 결과, 그 영광의
 광채는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으로 나타났고 그
 은총을 입은 자를 '헵시바, 빨라'로 불러 주신다.

헵시바와 빨라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그 분과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누리라고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오직 추수한 자'가 먹고 그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처럼¹⁾, 헵시바와 빨라는 그 구원의 이름을 누리는 자의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희롱하는 능욕의 세력을 잠잠히 받아 주시고 이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 가시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었고 시온에 세운 왕²⁾의 왕관이 되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살전2:19]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3: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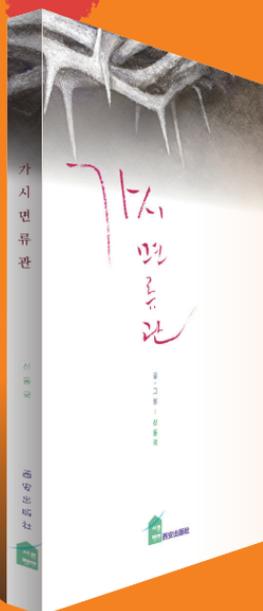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62:8-9]

2)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6]

이.진.인
이.진.인
이.진.인
이.진.인
이.진.인
이.진.인

서안출판 신앙 서적 안내



가시 면류관

신동국 글, 그림

사륙판, 240p

ISBN

979-11-955771-0-1

이천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얹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는 군병들……. 이 능욕의 세력은 군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둘러 쓴 무리들, 또 멀리 숨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나의 육신에 그 세력은 여전하다. 그러나 향나무가 짙는 도끼에 향기를 묻히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내가 있다.
주께 씌운 가시관은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
불 살라 없어져야 하는 가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출3:2> 빛을 발하는 것처럼…….

-머리글 중에서-

<https://www.westpeace33.net>

westpeace33@gmail.com



ISBN 979-11-955771-0-1

←이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왔다.

그가 찢림은 우리
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5]